

완도군, 청소로봇 쾌적한 동네 환경 조성

1대 당 3천만 원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 시범·도입 담배꽂초·전단지·낙엽·퇴적물 등 청소 가능해

완도군은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을 시범·도입하여 이면도로 및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광장 등 청소 취약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군민들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과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전라남도가 총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10개 지역 중 완도군 완도읍이 선정되었다.

청소 로봇은 1대 당 3천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30%를 지원한다.

다목적 노면 청소 로봇은 최신 흡기 시스템 및 물 분사 시스템을 적용하여 담배꽂초부터 전단지, 낙엽, 퇴적물 등을 청소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 작업 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이 적어 보행자는 물론 환경미화원에게도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



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형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인도, 공원, 학교, 아파트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청소로봇에 대한 만족도 및 성능 검증 후, 수요에 따라 추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기자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확대

장흥군, 이자 3% 지원 시책 실시

장흥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6월 1일 이후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까지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손해와 가계소득 감소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

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장흥군은 실물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정기분 재산세 11억원 부과

납부기한 다음달 5일까지...가상계좌·위택스 등 납부

진도군이 재산세 2만6,000여건에 대해 11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분세기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세부담을 고려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달콤하고 쫄득한 강진 고구마말랭이로 맛과 건강 챙기세요"

강진 향토기업 정심푸드 대표식품 '각광'

강진군 칠량 농공단지에 위치한 향토기업 정심푸드의 '고구마말랭이'가 우수한 맛과 신뢰도 높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정심푸드의 대표 상품인 반건조 고구마말랭이는 시험상품을 손님들에게 한두 번 내어주던 것이 반응이 좋아 인기를 끌면서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국내산 고구마로 만

들어졌으며 첨가물 없이 100% 원물 그대로 건조해 쫄득한 식감과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정심푸드의 고구마말랭이는 자체 기술 개발로 6개월 이상 보존가능하다.

동종업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x-ray 검사, 살균작업, 최신 포장기술을 접목한 '자동화생산라인'을 도입했다. 또한 자사에 실험실, 연구실을 구축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식약처 HACCP(위해요소 분석,중점관리) 인증을 취득했다.

현재 국내 이마트, 스타벅스, 씨제이올리브영, 홈플러스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대기업 OEM 생산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사업 규모를 넓혀 올해는 신제품인 코코넛고구마, 표고버섯, 건망고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진경학 정심푸드 대표는 "늘 바른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품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으며, 해외법인이 진출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기업발전뿐만 아니라 강진군 지역발전 위에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사장·임원선출·정관 등 설립 필요한 안건 다뤄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강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지난 21일에 개최됐다. 창립총회에는 발기인과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지역주민,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사장 및 임원선출과 정관, 사업계획 승인 등 설립에 필요한 안건이 다뤄졌다.

지난 6월에 구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 준비위원회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월 1회 이상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 지원사업의 전문가 멘토링을 받았고, 지난 7월 21일부터 약 3주간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도시재생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8월에는 8명의 발기인을 구성해 창립총회 이전까지 매주 2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작

성하고 세부사업계획 도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강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이후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약 한 달간의 심의를 거친 후 설립 인가를 받는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게스트하우스 등 마을 거점시설과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마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삼 이사장은 "주민과 함께 수많은 교육과 토론의 시간을 거쳤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일원 운전지방하천 2.76Km

해남군은 북일면 운전리 일원 운전지방하천 2.76Km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북일면 운전리구는 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로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를 겪으면서 지난 2019년 침수위험 나등급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명현관 군수를 비롯해 군 담당자들이 수시로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를 방문해 사업 시급성을 건의한 결과 20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사업을 통해 국비 50억원 등 사업비 100억을 확보, 운전천 인근 농경지 및 주택 침수 예방, 제방 보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노후 교량과 영농 시설물 인 농로와 보 등을 정비해 주민들의 영농 및 생활불편사항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1년 실시계획을 시작해 2024년 완공할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및 현장 설명회를 수시로 실시해 주민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